

성공 스토리

Peak, 빙글의 카툰 스타일 하이퍼 로컬라이징 크리에이티브로 일본 시장을 사로잡다

peak



일본 유저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카툰화한 Toon Blast
크리에이티브 제작

미국에 이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 발견

출시와 동시에 1억 유저를 달성하며 소셜 게임장르의 새 역사를 쓴 모바일 게임 Toon Blast는 여전히 미국 iOS 매출 순위 Top 5 게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Toon Blast는 빙글 크리에이티브 랩이 제작한 하이퍼 로컬라이징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안정적인 전환율을 확보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2019년에는 빙글 네트워크 기준, 일본을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시장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타겟 국가의 고유 문화를 접목한 크리에이티브 제작

Peak과 빙글 크리에이티브 랩은 일본 고유의 대중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를 크리에이티브에 최대한 담아내길 원했습니다. 양사는 긴밀한 논의를 거쳐 Peak의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와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만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결합한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빙글 크리에이티브 랩은 빙글 Japan 소속 디자이너와 함께 엄격한 데이터 테스트 및 최적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 적합한 콘셉트 확립 및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캐릭터 중심의 크리에이티브와 폰트 스타일링, 색감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일본의 최신 트렌드를 녹여내기 위해 현지 우수 사례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자동으로 번역을 지원하는 다이나믹 로컬라이제이션 기술뿐만 아니라 하이퍼 로컬라이징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를 특별 제작해 소재의 완성도를 더 높였습니다. 또한, 게임 캐릭터를 카툰화해 Toon Blast 브랜드와 스토리를 한편의 만화처럼 구성해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브랜딩 효과는 물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진화하는 크리에이티브

이처럼 세밀한 현지화 작업을 통해 탄생한 Toon Blast의 카툰 콘셉트의 크리에이티브는 일본 유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실제로 빙글의 일본 네트워크에서 가장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빙글 크리에이티브 랩은 Peak의 지속적인 글로벌 캠페인의 성장을 위해 타겟 국가의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크리에이티브를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